

배추 넘치는데 김포족 늘었다…김장철 수급 ‘딜레마’

가을배추 생산량 120만t·무 35만t…지난해보다 3.2%·7.2% 증가
김장 ‘줄인다’ 16.3%·‘늘린다’ 15%…소비 감소에 상품 구매 늘어

올해 김장철에는 ‘김포족’ (김장포기족) 증가 및 안정적인 배추·무 등 김장 재료 수급이 겹쳐 이례적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요량은 급증하는 반면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해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현상이 당연시됐던 것과 상반된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직접 김장을 하는 소비자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 의향 조사 결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많았지만, ‘줄인다’가 16.3%, ‘늘린다’는 15.0%로 김장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장 수요가 줄어든 이유로는 ‘가정 내 김치 소비량 감소’가 49.0%를 차지했고, 상품김치 구매가 편해서(18.4%), 남아있는 김치가 많아서(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정에서 직접 김장하는 비중은 2022년 65.0%에서 올해 62.3%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의 입맛을 맞출 수 있어서’가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상품김치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022년 25.7%, 2023년 29.5%, 2024년 29.5%, 2025년 32.5%로 대폭 증가했다. 김치를 사서 먹는 이유로는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어서’ (39.5%), ‘김치 담그기가 번거로워서’ (33.1%) 등 소비자 편의성과 관련된 응답이 많았다.

과거 함께 모여 김장을 했던 ‘김장 모임’도 사라지는 추세다. 김장 모임에 참여하는 가구는 평균 2.1가구, 인원수도 5.1명으로 전년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축소됐다.

올해 김장 재료로는 김장배추의 58.9%를 절임배추가 차지했고, 신선배추는 38.7%를 기록했다.

절임배추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절임 과정이 번거로워서’ (55.8%)가 가장 많았고, ‘김장 시간 단축’ (32.5%) 등이 꼽혔다. 이 밖에 김장용 양념도 직접 제조 비율이 올해 85.8%로 전년(96.5%) 대비 10.7%포인트(p) 하락했다.

김장 재료에서도 절임배추와 완성된 양념을 구매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성 위주의 재료 수급이 우선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장용 배추 평균 구매량은 4인 가구 기준 18.3

포기로 1년 전보다 0.2포기 감소했다. 김장 무 평균 구매량은 가구당 8.4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김장 자체를 줄이거나, 김치 소비를 줄였지만, 농가에서는 배추와 무 등 김장 재료 생산량을 늘렸다.

올 가을배추 생산량은 120만 t, 가을무 생산량도 35만 t으로 전년에 견줘 각각 3.2%,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폭염·장마 장기화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부진했던 반면, 올해는 생육 여건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원활한 수급 상황 및 수요 감소 등으로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KREI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김장 재료들의 공급이 원활해 올해 김장철 물가 부담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년보다는 배추(-3.8%)·무(-11.2%) 등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여전히 공급 불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2025년 김장 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 비축물량 배추 8500 t, 무 2000 t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국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김장 재료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1조원 달성

일평균 거래액 32억 6000만원…거래 참여업체 39%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올해 역대 최대 거래실적인 1조원을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 제도로, 거래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목표치였던 5000억원을 35% 초과한 673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는 목표치 1조원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aT는 올해 거래 목표치 1조원 달성을 위해 부류별 상품기획자(MD)를 통한 거래 알선, 맞춤형 컨설팅 및 팜투어를 통한 산지 직거래 활성화, 성출하기(농산물 출하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맞춘 특화상품 개발, 카카오톡·롯데온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구매자 유치 등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거래 참여 업체 수는 5272개소로 전년(3804개소) 대비 39% 확대됐고, 일평균 거래 금액도 18억 4000만원에서 77% 오른 32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 급성장에는 온라인도매시장 MD의

역할이 컸다. 담당MD는 비대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판·구매사 대상 거래가능 품목 알선, 산지 팜투어 동행, 지원사업 1:1 설명 등 거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aT는 올해 1조원 조기 달성 실적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농업인·유통인의 온라인도매시장 참여를 독려했다. 또 청과·수산 등 79개 신규 품목을 거래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다.

향후 거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 거래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거래중개인과 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전문성과 상품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1조원 조기 달성 실적은 다양한 거래자들이 직접 거래에 참여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통 효율을 높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지은행 통합포털서 농지 정보 한번에 본다

NH농협은행과 협약 체결…‘내일의 땅’ 플랫폼 연계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입차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이 운영하는 토지·농지 정보 제공 서비스 ‘내일의 땅’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서비스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신규 진입자의 정보 탐색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 매물 자료 상호 연계는 연내 이뤄질 예정이며,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내일의 땅에서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유통가 ‘김장 전쟁’

배추·무·생굴 등 할인 행사

유통업체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등 주요 김장 재료를 대폭 할인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김장철을 맞아 주재료인 배추를 포기당 2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우선 이마트는 오는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김장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배추 한 망(세 포기)과 무 한 단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한다.

또 김장 양념 및 함께 먹기 위해 소비가 급증하는 생굴과 돼지고기(삼겹살·목심) 등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한다. 엘포인트 회원은 배추와 훙가, 청가 등을 2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밖에 생굴(100g)은 30% 할인하고, 수육용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100g)도 2000원 미만에 내놓는다.

홈플러스는 오는 19일까지 해남·괴산 절임배추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괴산 절임배추는 행사 카드 결제시 1만원 할인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오는 13~26일 배추와 절임배추, 무, 마늘 등 주요 김장 재료와 김장용품 판촉 행사를 연다.

/장윤영 기자 zzang@

농식품부, 광주 ‘하루식품’ 김치 종균 활용 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7일 광주시 소재 하루식품을 방문해 김치 종균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고 9일 밝혔다.

종균은 자연 발효가 아닌 인위적으로 발효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순수배양 미생물로,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세계김치연구소에 위탁해 김치 종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치종균 보급사업은 김치 종균을 제공함으로써 김치 품질을 표준화하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t의 김치종균을 보급했으며, 이를 통해 종균으로 발효된 김치 7000여 t을 생산했다.

종균 발효 김치는 맛과 품질의 향상 뿐만 아니라

품질 유지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45~60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 유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주·유럽 등 해외 장거리 수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발효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하루식품 방문 현장에서는 종균을 사용해 본 적 없는 김치 제조업체들이 종균 활용 및 적용 방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김치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종균 사용 경험이 있는 김치 제조업체는 전체의 5.6%에 불과했고, 종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도 56.7%에 달했다.

향후 농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김치업체의 종균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 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